성경은 쉬운 책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면서 왜 성경을 어렵게 써놓았는지를 의아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더 쉽게 쓰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분량적으로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2-3장 읽는 것으로는 1년이 다가도 다 읽어내지 못합니다.

내용도 어렵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읽을만한데, 율법, 특히 성막을 성령하는 부분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구약 마지막에 있는 선지서도 알 수 없는 말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읽지 못할정도로, 이해할수 없을 정도로 난해한 책은 아닙니다.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진지한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적용가능한 책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쉽게 쓰지 않으신 이유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3)"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구하며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 2:4-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일은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노력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젊은 청년이 분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태어나서 자신이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째서인지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자신과 사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편지 한 장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심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열어보니 .... 러시아어로 적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후 이 남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라고 러시아어를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어 아니라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프리카 방언이라고 하더라도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감사하게도 영어도 아니요. 러시아어도 아니요. 케냐어도 아닙니다. 우리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관심을 두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26.11.1 여러분의 가족 이목사

주일오전예배 말씀요약

선물 줄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받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안다면 좋은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예측불허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하되 억지로나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역모임

남여전도회 모임